

between Art &
Business

VOL. 346 APR 2007 www.design.co.kr

DESIGN



슈웨누라 루즈 언더리프

특집 디자이너의 차별화 포인트
Differentiating Designers **DIY**

커버스토리 | 화장품 베스트셀러의 디자인 노하우 리포트 | 튜닝 디자인의 확장 프로젝트 |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대량생산에 준비된
혹은 수공의 맛을
이어가는 디자인에
도전한다



가구+조명전 연 김백기·이광호

유쾌한 두 청년이 만났다. 4년간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다 영국 유학을 떠날 채비 중인 김백기 씨와 홍익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이제 갓 졸업한 이광호 씨가 홍대 앞 BMH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1년 치 전시 스케줄을 꽉 짜놓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번 전시이며, 첫 전시회인 만큼 BMH 이상은 대표로부터 전시회 홍보로부터 시작해 특별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완성한 개인작업을 모아 조명과 가구를 선보였다. 그리고 공통의 주제로 '한국의 일상적 풍경'을 각자의 스타일대로 풀어낸 2개의 의자를 소개했다. 김백기 씨의 '스노우 폴(Snow Fall-한벽이 내린 장독대의 풍경)'과 이광호 씨의 '질 소파'이다. 김백기 씨는 집 앞에 놓인 장독대에 소복하게 눈이 쌓인 모습을 의자로 표현했다. 그는 대량생산 될 수 있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양산에 대한 제약이 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광호 씨는 금속공예를 하며 익힌 심세하고 아기자기한 손놀림을 실려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에 접근한다. 그의 질 소파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본 풍경을 표현한 것이며, 좌단을 용달차에 사용하는 나일론 끈으로 묶어 구조적으로 튼튼한, 그러면서 온기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했다. 아직 실익은 디자인이란 감도 없진 않지만 이들의 '자신만의 커리어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각자의 디자인에 대한 소신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백기 씨는 영국 출국을 앞두고 이 전시회를 알렸으며, 이광호 씨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음 맞는 친구와 동아서 한국에서 '스튜디오'(studi-oh, www.studi-oh.com)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김백기 씨는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스튜디오 멤버가 제대로 다 갖춰지는 올 4월에는 '스튜디오'의 리빙 디자인과 관련한 그룹전을 열 계획이며 올해 적어도 한 번 이상 해외 전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에디터/김병연 인문사진/박건주

가구 디자이너 한정현 씨가 가회동의 한적한 공옥에 새로운 동지를 들었다. 상충동 길에 토스(Tos)란 이름의 카페를 운영했던 그녀가 옆 동네로 옮겨 '숍+갤러리+작업실'의 성격을 띤 공간 '체어스 온 더 힐(Chairs on the Hill)'을 오픈한 것이다. 디자이너란 창조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며 소비자들과 좀 더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는 요즘 건축가 황두진 씨가 설계한 건물을 대수선한 뒤 공간을 재워나갈 콘텐츠를 구상하느라 바쁘다. 게다가 짙고 재주 있는 아티스트 강석현 씨와 함께 이력서 작업에 균리하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금 한창 맴돌고 있는 것은 한 통신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머지 않아 선보이게 될 책장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다. 한정현 씨는 전시회를 통해 알려지게 된 디자이너. 2003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두아트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디자이너스쿨레닛,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등의 국내 전시와 런던 디자이너스 북북, 피리 국제가구박람회 등의 해외 전시에도 참여했다. 현재 한정현 씨의 가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청담동에 있는 안넨(Inner)과 서미엔투스 옥재의 길을 잘 살려 디자인한 '둘을 위한 벤치(Bench for Two)'가 베스트셀러다. 그녀는 '소량 생산의 포인트 가구'를 추구한다. 소품과 가구를 겹쳐 공간에 액센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구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나, 좋은 재료로 제대로 가공된 가구를 제공하는 것이 가구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픈 선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생산하려고 한때 고민도 했으나, 역시 결과는 품질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고민이 많다. 그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가구 디자인 수업인데 스스로의 강의 방식에 대해 물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때 좋았던 것들을 떠올리며 하는 것이죠"라고 한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고 크렌브룩 아카데미에서 3D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텔레 사파니스를 통해서였고, 그에겐 매우 실험적인 작업이었으며, 애착을 가졌던 그것이 곧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란 이야기에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된다.

www.designjh.com 에디터/김병연 인문사진/박건주

디자이너 한정현,숍+스튜디오 오픈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적
화두를 만들고 싶다

